

다이쇼인 절: 산키도

미센 산의 산키도는 미센 산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세 명의 신인 ‘산키 다이곤젠’을 모시고 있습니다. 산키 다이곤젠이란, 신도(神道)와 불교의 융합(신불습합)이 강렬하게 구현된 귀신으로서 신도에서 신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부처를 말합니다. ‘귀신(鬼神)’이라고는 하지만, 영혼을 의미하는 귀신이 아닌 승상의 대상으로서 ‘신(神)’을 의미합니다. 이 세 명의 신은 대일여래(우주의 진리를 나타내는 부처)의 화신인 쓰이초 귀신과 허공장보살의 화신인 지비 귀신, 불교의 오대명왕 중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동명왕의 화신인 마라 귀신입니다. 미야지마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이들 산키 다이곤젠은 미센 산 전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산악신앙과 진언 밀교, 신도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까지 세 가지의 신앙적인 요소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융합은 산키도에서도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키도에서는 제단에 놓인 등근 거울로 산키 다이곤젠을 표현합니다. 거울은 신사에서 신과의 접점으로 자주 사용되는 신도의 상징입니다. 산키도에서는 각각의 거울 뒤에 산키 다이곤젠을 나타내는 불상이 자리하고 있는데, 실제 불상은 커튼 뒤에 가려져 있어 볼 수는 없습니다. 벽에는 두 개의 커다란 텐구 가면이 걸려 있습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긴 코가 특징인 텐구는 산키 다이곤젠을 섬기는 동물로서 예로부터 산악신앙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산키 다이곤젠은 9세기부터 미센 산에서 숭상해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센 산의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금의 등산로는 산키 다이곤젠을 숭상했던 일본의 초대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1841~1909)가 자금을 들여 정비했습니다. 1991년에 재건된 지금의 산키도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